**류길재 통일부장관 기조연설 요지**

*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에는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촘촘한 이해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한편, 역사ㆍ영토 문제와 더불어 특히 ‘북한 문제’로 인한 첨예한 갈등 또한 존재한다.
* 이에 박근혜정부는, 남북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예측가능한 남북관계에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생성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 태도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신뢰구축을 위하여,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는 경우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경협 사업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경제 체제 편입을 적극 돕는 등, 북한과의 협력 또한 계속할 것이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로서, 박근혜정부는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ㆍ문화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룬 후,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고자 한다.
* 한국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통일은 반드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평화통일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며 ‘열린 통일’을 추구한다.
* 통일 과정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첫째,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 둘째, 동북아와 유라시아와 새롭게 도약할 계기로 작용하며, 셋째, 역내 통합과 협력을 촉진한다.

**질의응답**

봉영식: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 자랑할 만한 성과라기보다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경직된 태도라는 일견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왕위조: 한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한중관계 및 한반도통일 및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 북한문제에 있어 한중양국의 공조는 특히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북한의 이해관계 프레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중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공조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는 중국이 통일이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역내 번영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바실리 미키브: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

*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통일이란 남북 분단 이전의 영토적 또는 물리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키고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일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